

경기변동과 경제전망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발표자: 류승민(정책연구원)

경기 침체 현실화되나...산업 생산 32개월 만 최대 폭 감소

2023.01.31 11:49 입력 ▾

이창준 기자

- 국내 산업 생산 지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 생산은 3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순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향 지표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 경제 충격이 두드러졌던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2.9%) 생산의 부진이 감소세를 견인했다. 자동차(-9.5%)와 전자부품(-13.1%) 생산이 특히 크게 줄었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해외 수요가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4.9%)는 전월 대비 생산이 늘었는데, 통계청은 최근 부진한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소비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4% 늘며 4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통계청은 동절기 의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지 전반적인 내수 흐름이 반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의복 등이 포함된 준내구재 판매가 큰 폭(11.4%) 늘었다. 통신기기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2.7%) 판매는 감소했다. 비내구재는 소폭(0.1%) 상승했다. 서비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0.2%)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넉 달 연속 감소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됐던 2010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보험업(2.3%) 생산은 늘었지만 부동산(-5.3%), 운수·창고(-3.7%), 숙박·음식점(-3.0%) 등에서는 줄었다.
-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7.1%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 등을 제거하고 순수 현재 경기 흐름만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지난 2020년 4월(-1.2포인트)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케 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표는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통상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하락하면 경기 순환 국면의 전환점 신호로 해석된다.

오늘 강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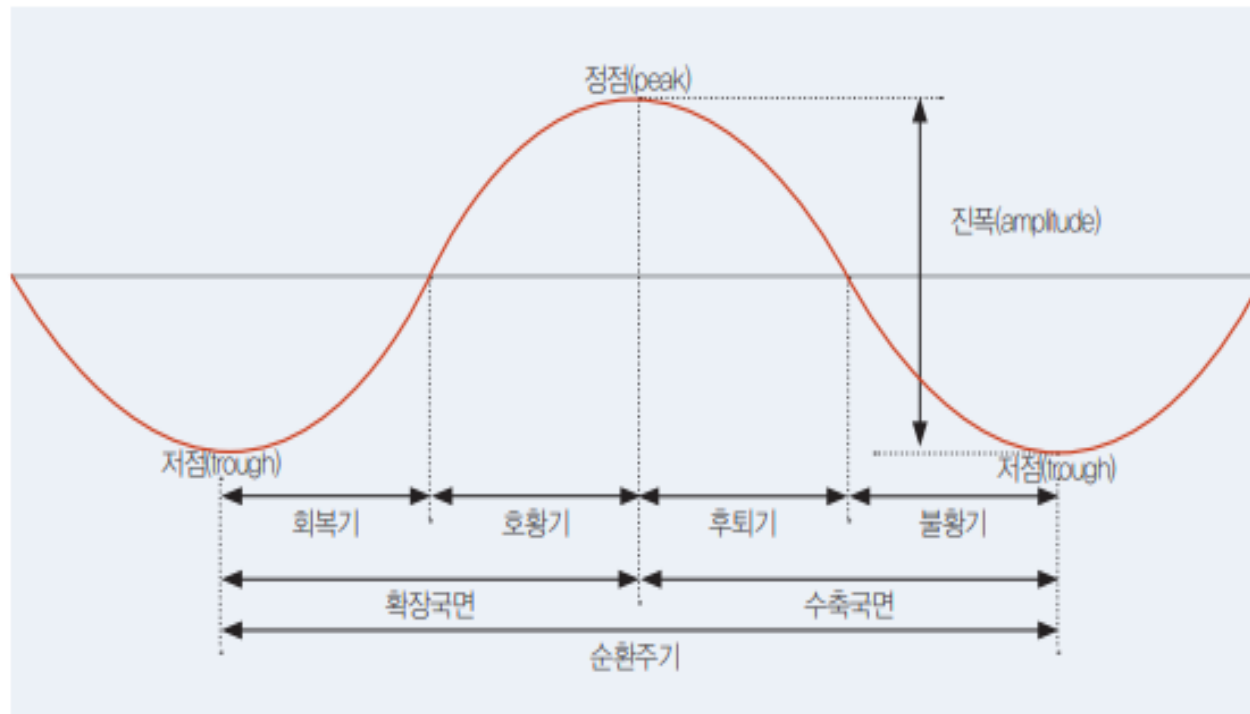
첫째, 경기순환이란

둘째,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셋째, 경제위기의 간략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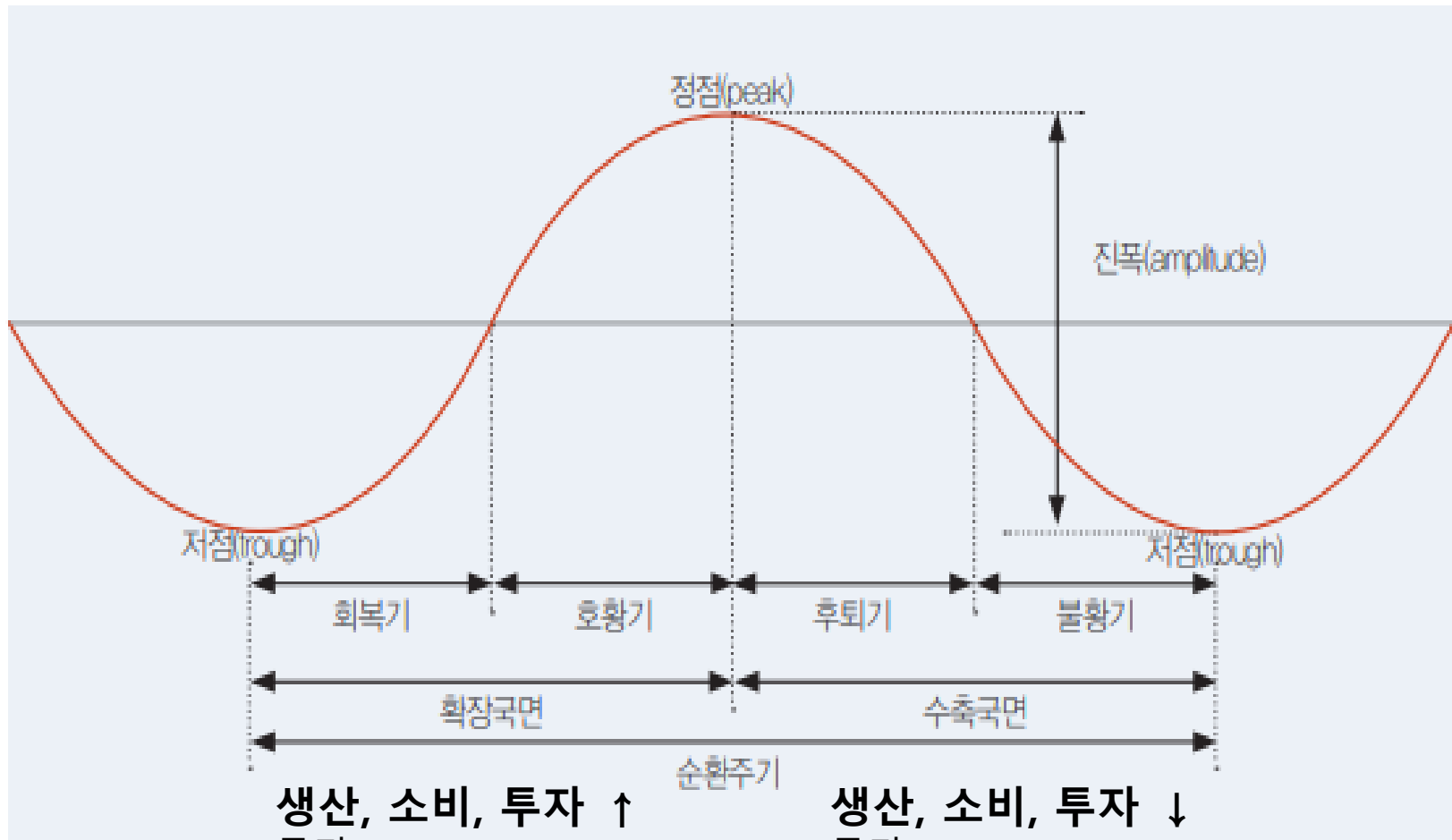
1. 경기순환이란?

- 경기, 즉 경제 상태(형편)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 **후퇴** → **수축** → **회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상



자료: 한국은행(2019) [알기쉬운 경제지표]

1. 경기순환이란?



2.경기순환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 경기순환과정에서 다양한 경제변수들이 변화하고, 이를 측정하여 경기 상태를 판단함.

구분		지표명	작성기관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및 제품재고지수, 제조업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수요	소비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재내수출하지수 소비재 수입액	통계청 관세청
	건설투자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통계청 국토교통부
	설비투자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액,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지수 기계류 수입액	통계청 관세청
	수출입	수출 및 수입액	관세청

2.경기순환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 경기종합지수란?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

1)선행종합지수: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 제외),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2)동행종합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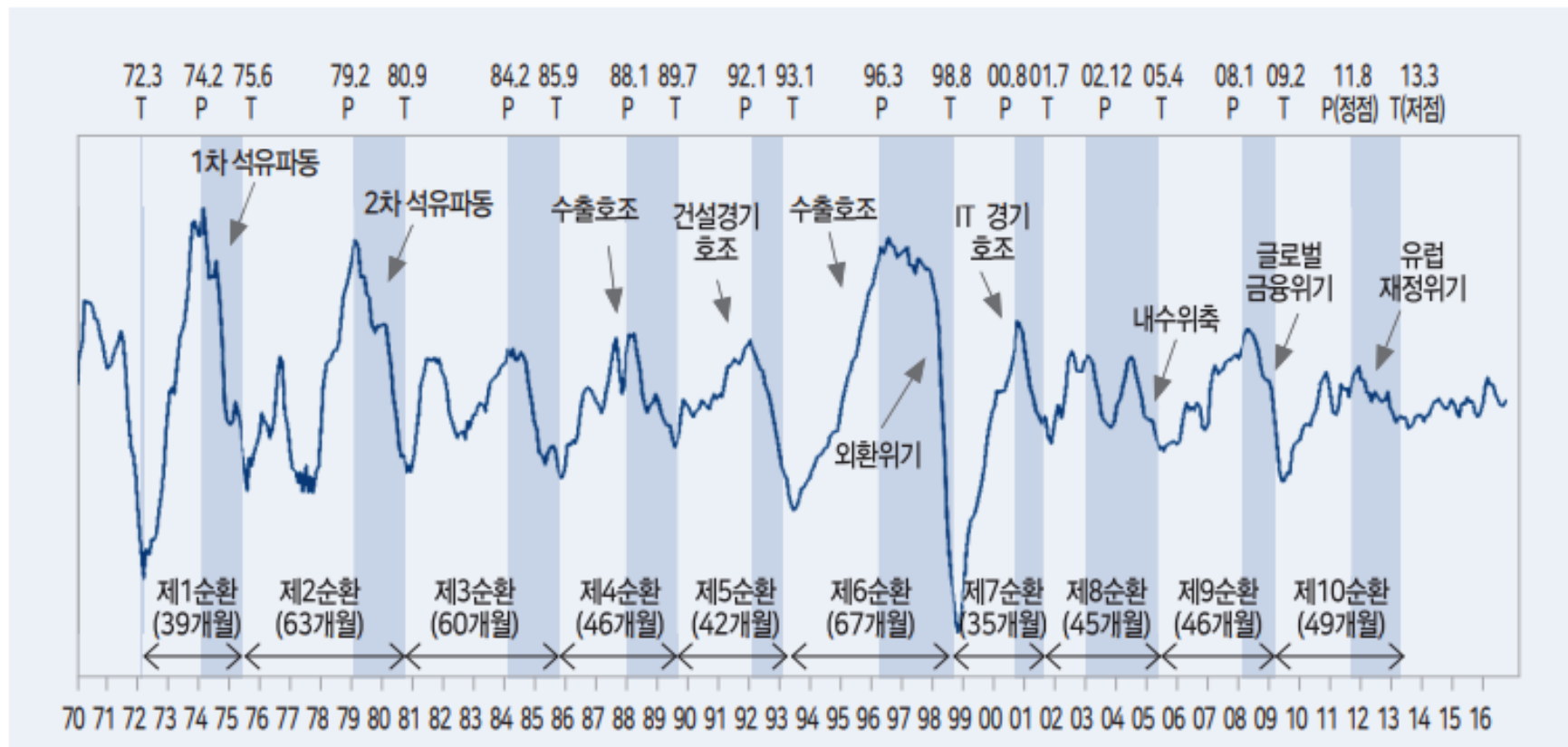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 제외),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변동을 제거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사용됨

3)후행종합지수: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서비스업), 소비재수입액, 취업자수, CP유통수익률 등

[참고] 한국의 경기순환



P: 정점(Peak), T: 저점(Thr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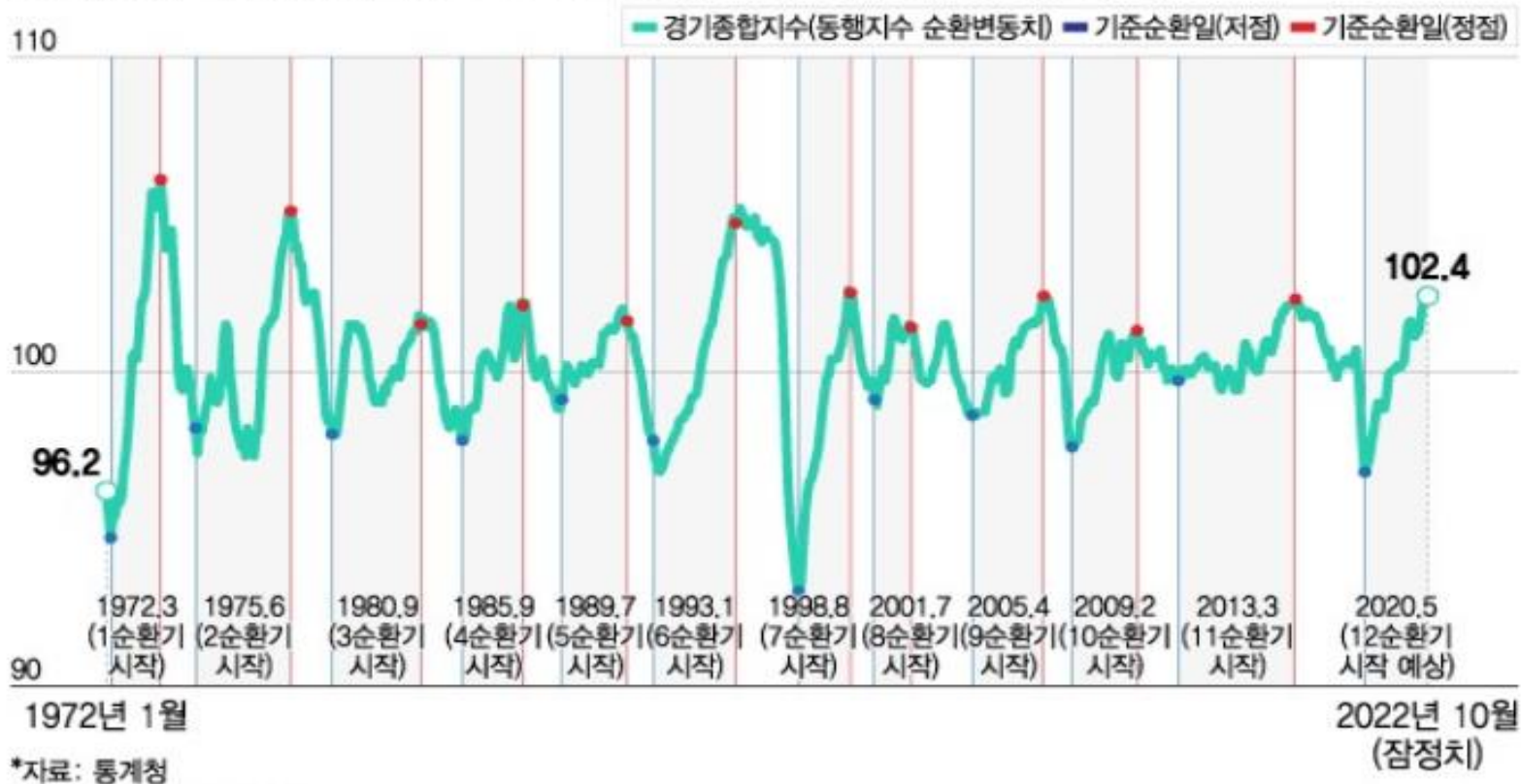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돌아보니 2020년 5월 코로나 1차 쇼크 때 경기 바닥 쳤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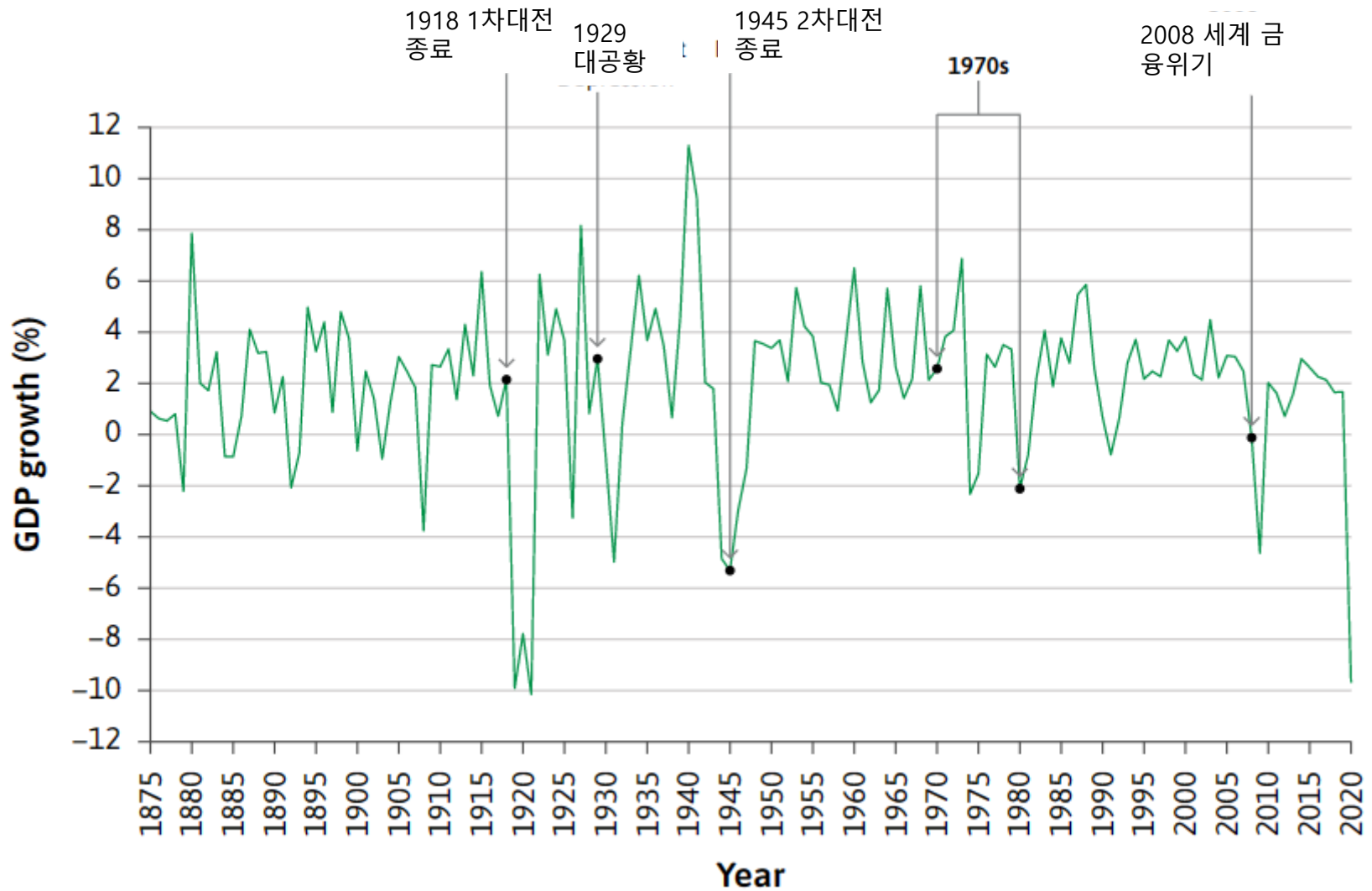
2022.12.06 06:11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기준순환일 설정 추이



["돌아보니 2020년 5월 코로나 1차 쇼크 때 경기 바닥 쳤다" - 머니투데이 \(mt.co.kr\)](https://www.mt.co.kr)

[참고] 미국의 경기순환



3.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 왜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위기(공황(불황))을 반복하는가?

- 1) 경제위기? 자본주의 이전 시기 vs 자본주의

- 2) 경제위기의 형태: 과잉생산(공급 > 수요)

- 3) 자본주의 경제에서 위기는 필연적인가?

******The General Glut Controversy(전반적 과잉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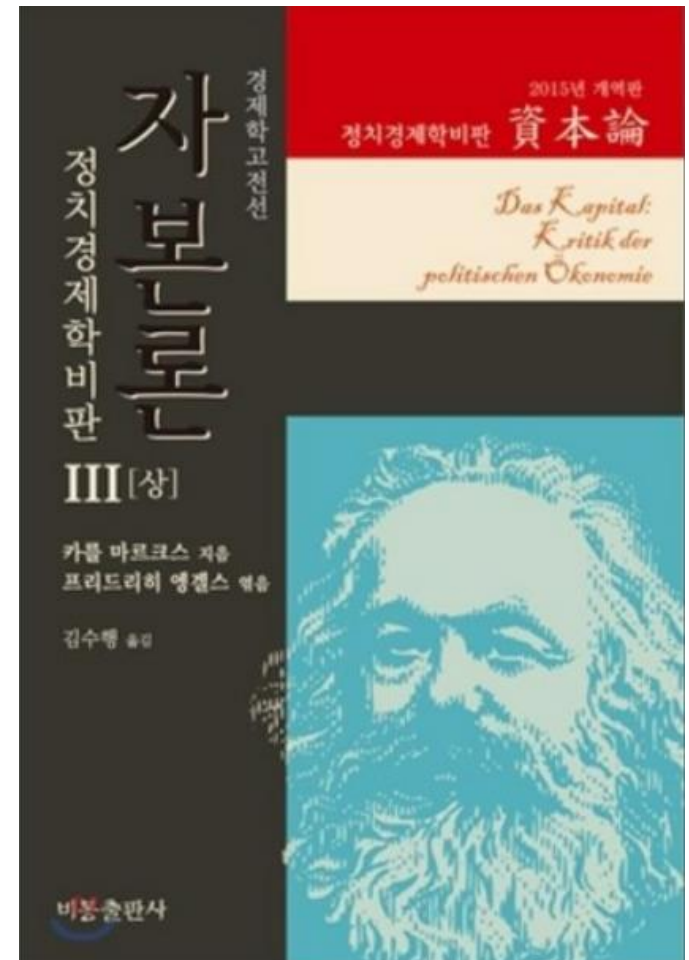
- 경제 전체의 과잉 생산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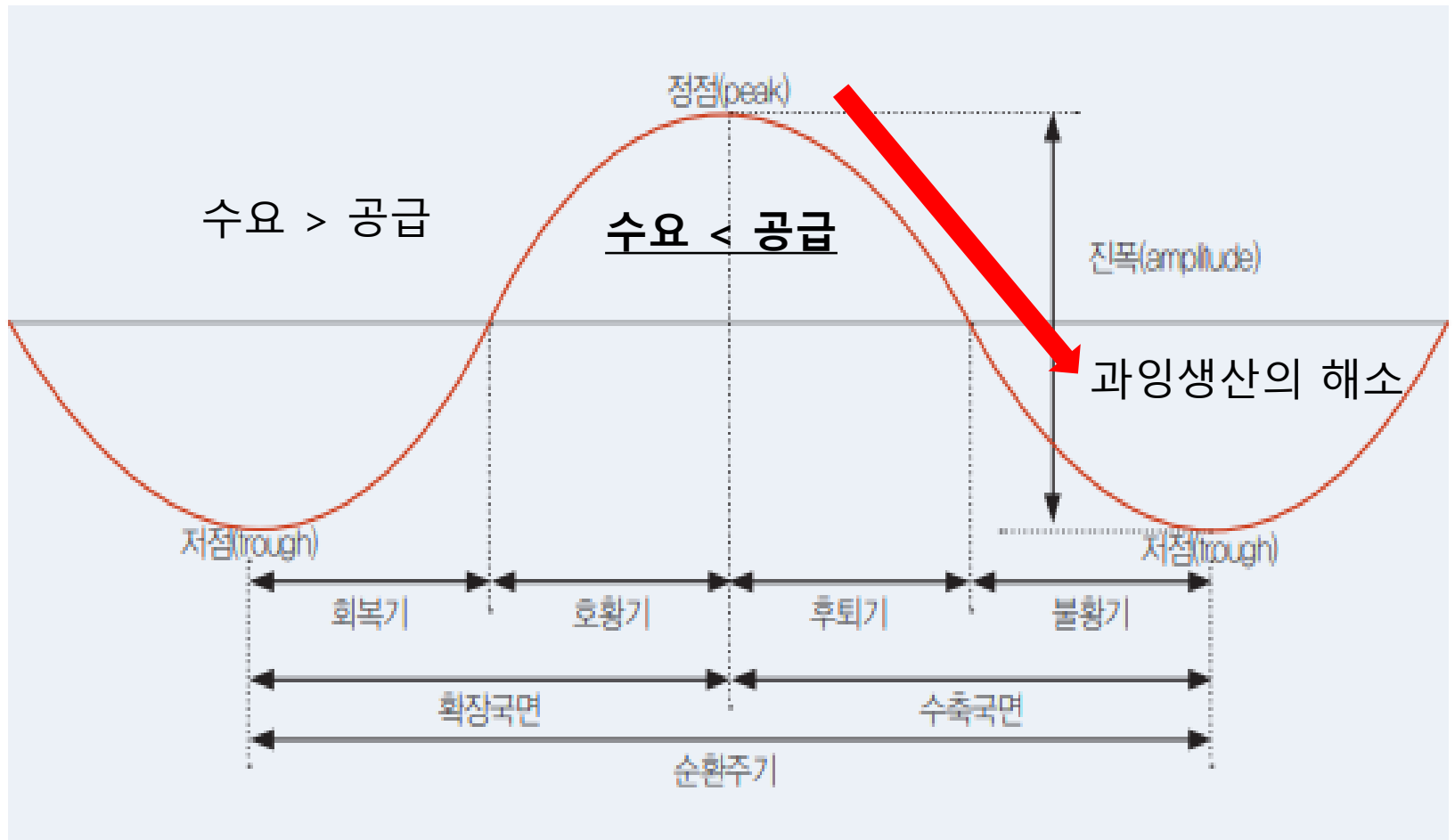
- > 세의 법칙(Say's Law):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 > 토마스 멜서스: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수요, 따라서 지주의 소득을 높여서 수요를 창출해야 함.

마르크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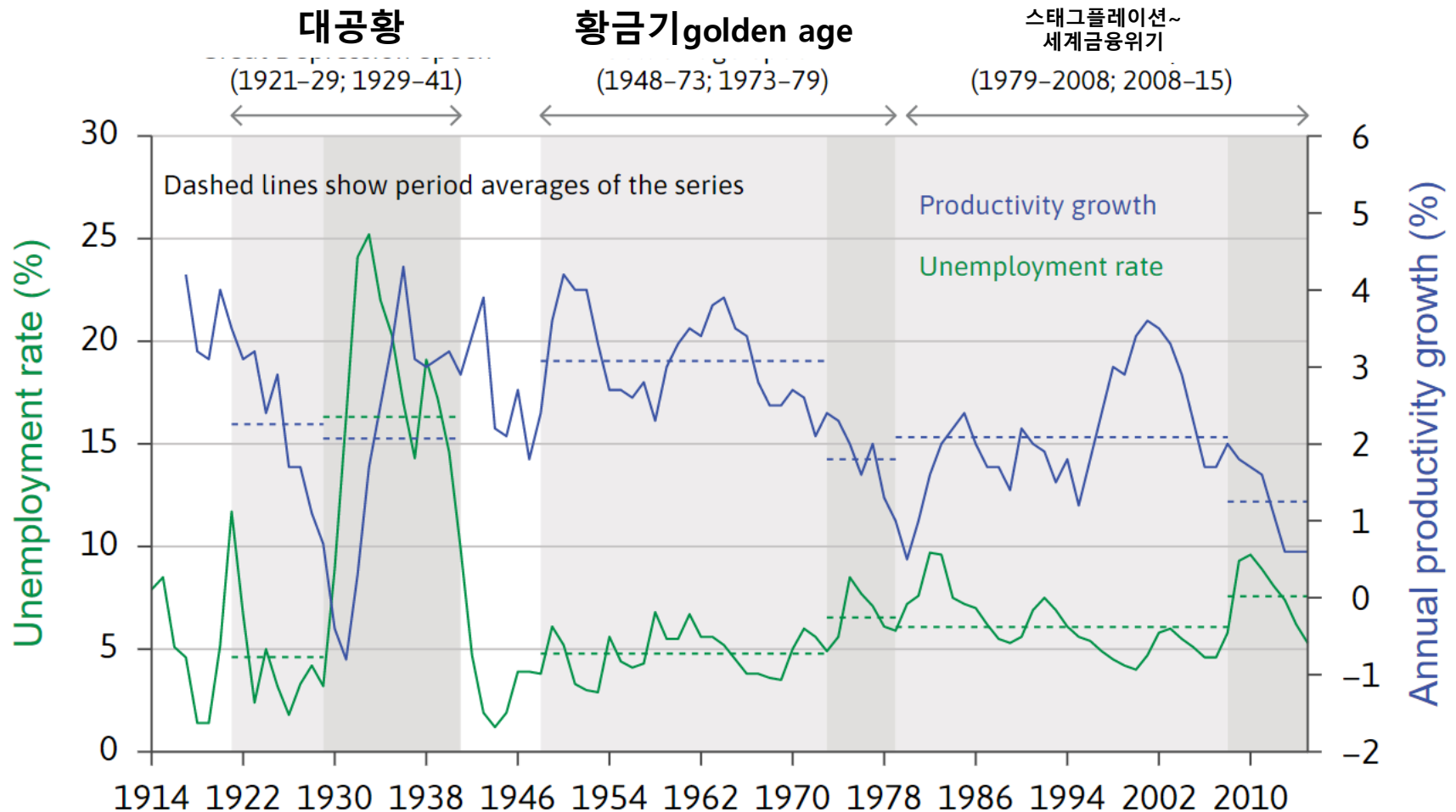
- 경제위기의 원인: 생산과 소비의 모순
- 과잉생산이 일어나는 이유
 - i)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
 - > 수요의 크기에 부응하는 공급이 불가능함
 - ii)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 > 소비수요를 제한함
 - > 호황기에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가?





- 경제위기(공황)이란? 과잉생산의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

4. 경제위기와 정부의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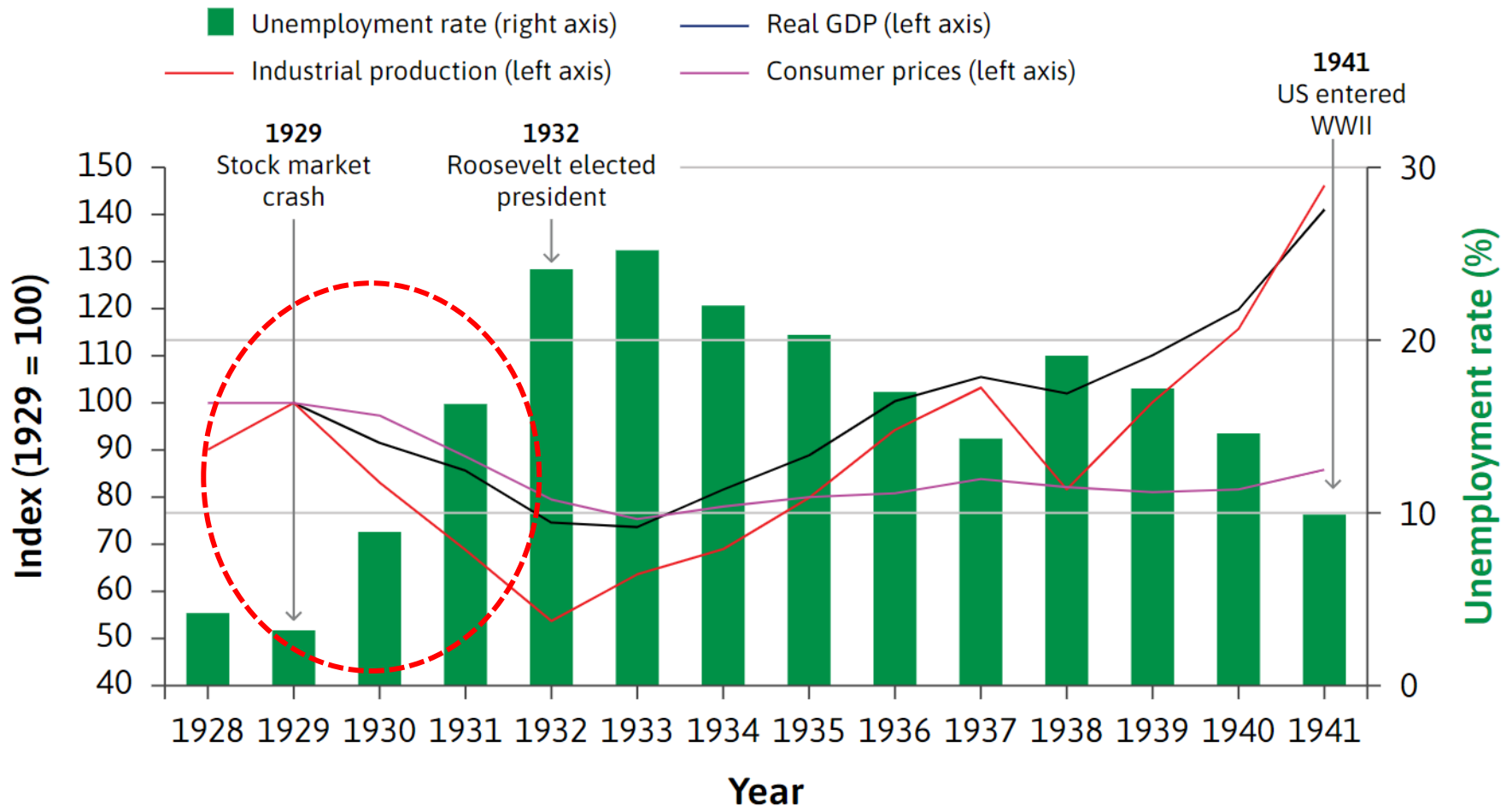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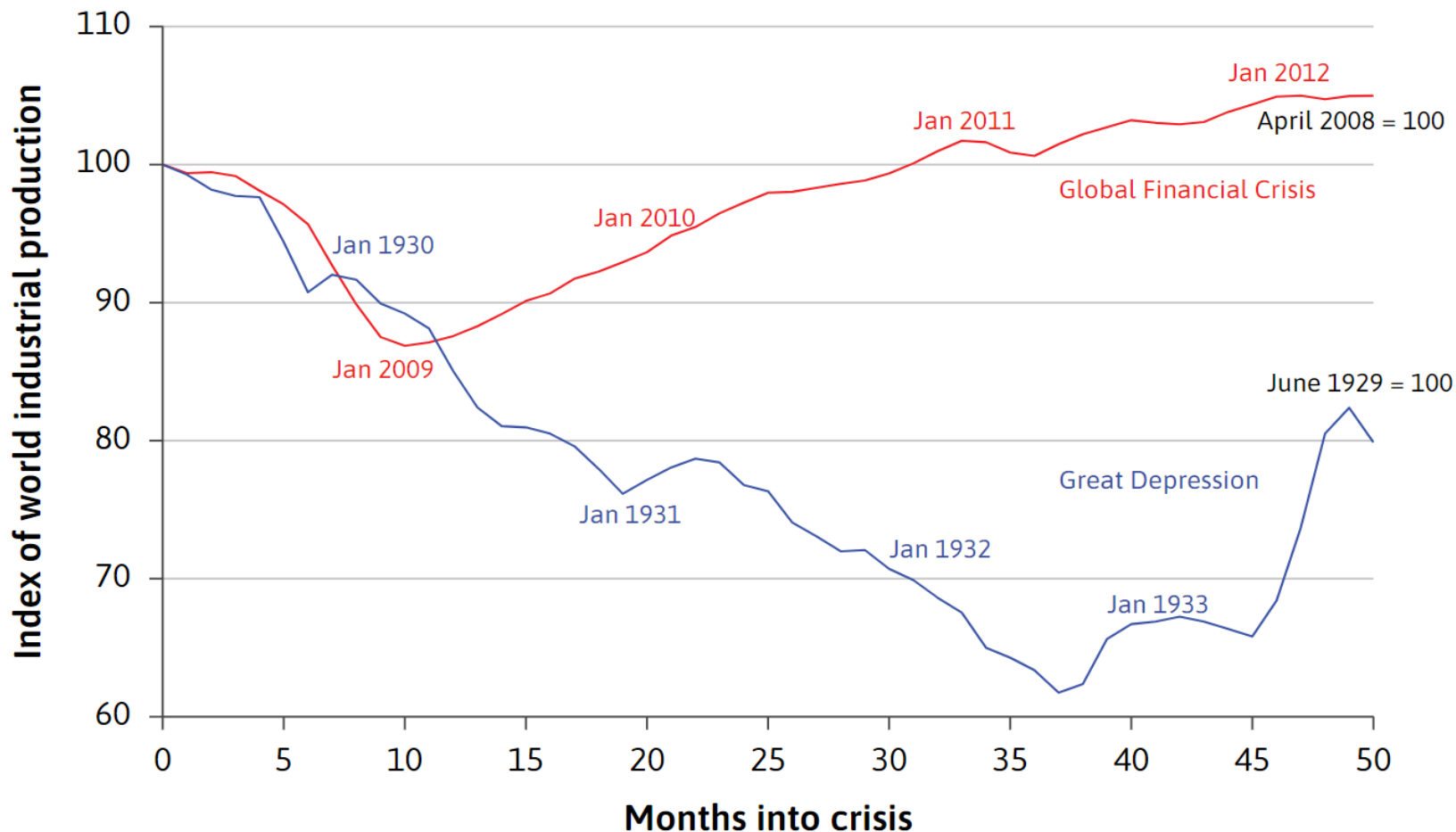
-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와 더불어 그 성격을 바꾸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함

1929년 대공황

• 대공황 시기 미국경제의 상황



[참고] 1929년 대공황 vs 2008년 금융위기(세계산업생산)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대공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케인스의 등장

1)내버려 두면 된다!

-(케인스의 명명) 고전파 경제학자들

-대량실업의 원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음**)으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

-> 노동시장의 유연화(노조개입 비판)

-세의 법칙 옹호: 위기는 일시적이므로, 내버려두면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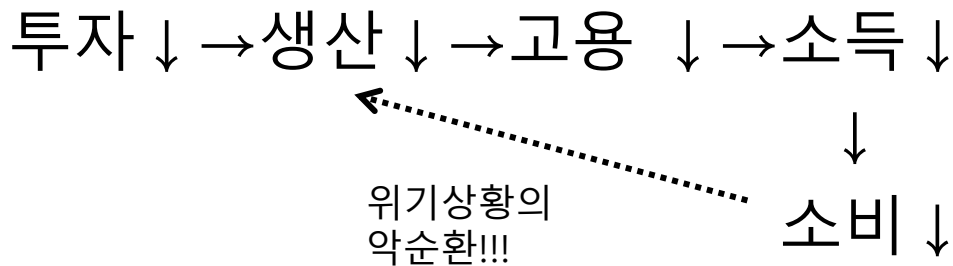
대공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케인스의 등장

2)정부 개입의 필연성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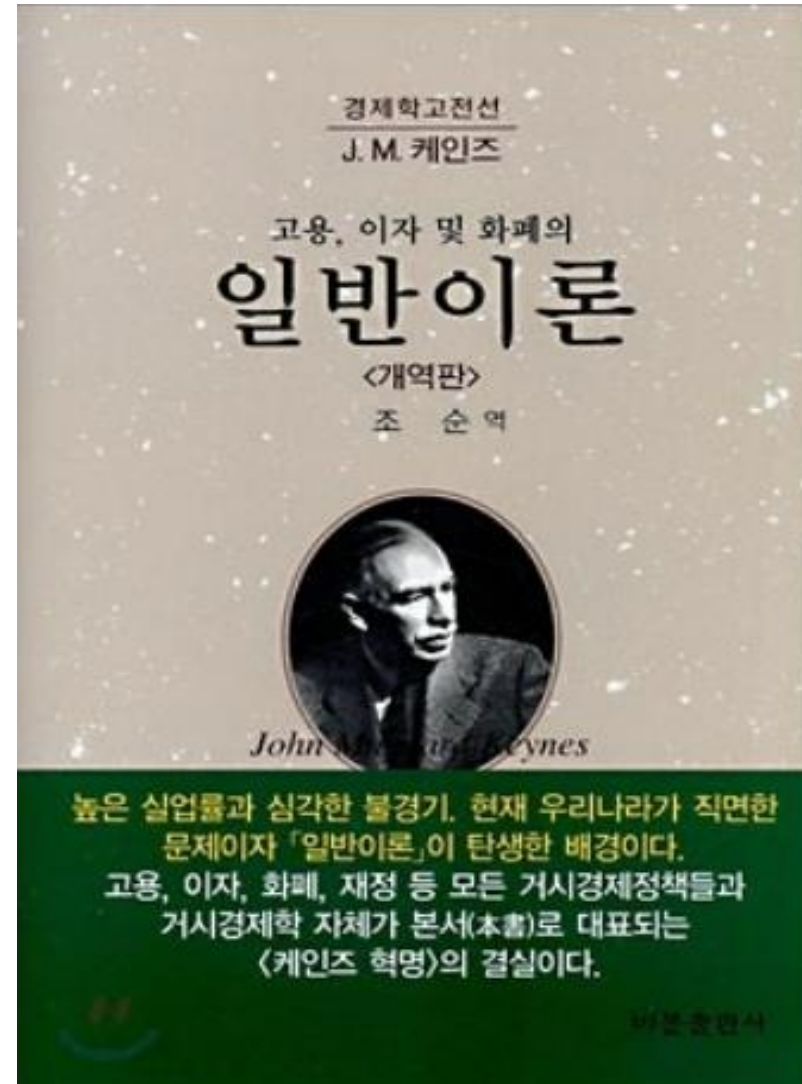
-공황의 원인: 유효수요의 부족

*유효수요 = 소비 + 투자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결정?



*구성의 모순에서 자유로운 정부가 개입해야 함



*구성의 모순과 절약(저축)의 역설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는 현상. 예를 들면 운동경기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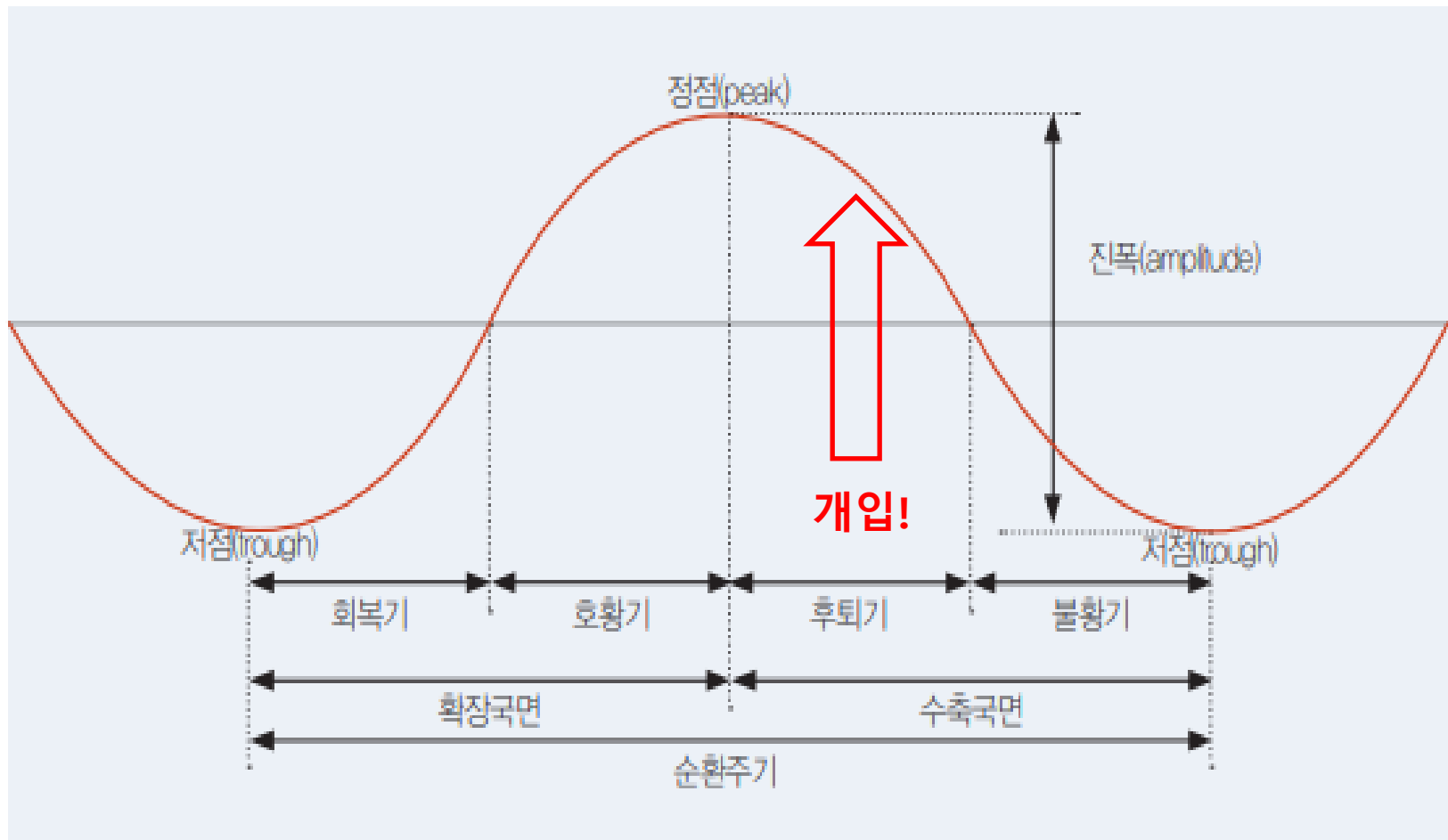
J. M. 케인스는 이러한 구성의 모순 사례로 '절약의 역설'을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 바람직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경제가 침체된다고 해석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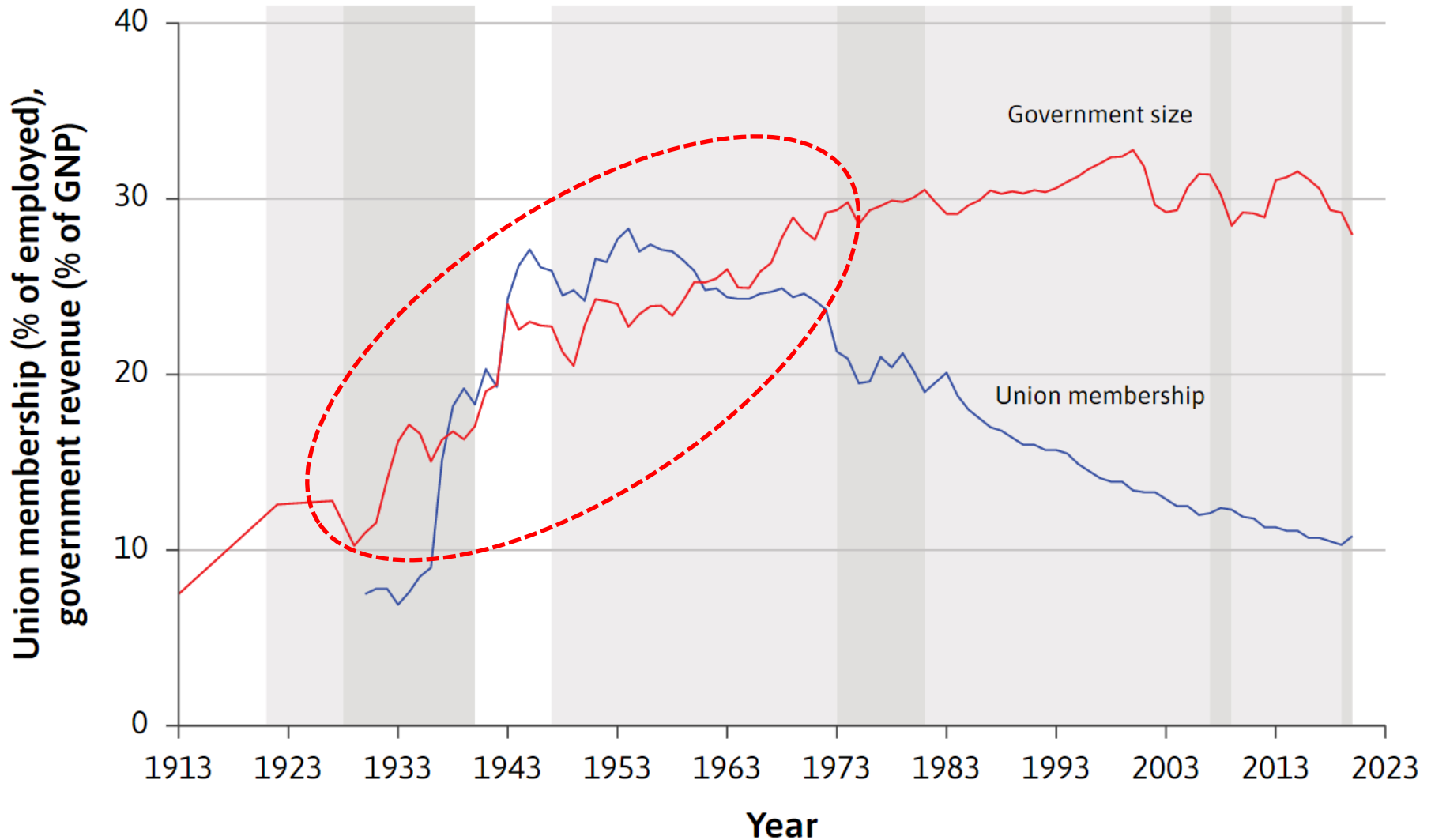
▲ 콜로라도강을 막고 세워진 후버댐의 모습이예요. 블랙 협곡을 가로지르는 U자형의 견고한 콘크리트벽으로 이루어진 이 댐은 2만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와 라스베이거스 등 인근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내며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이 됐습니다.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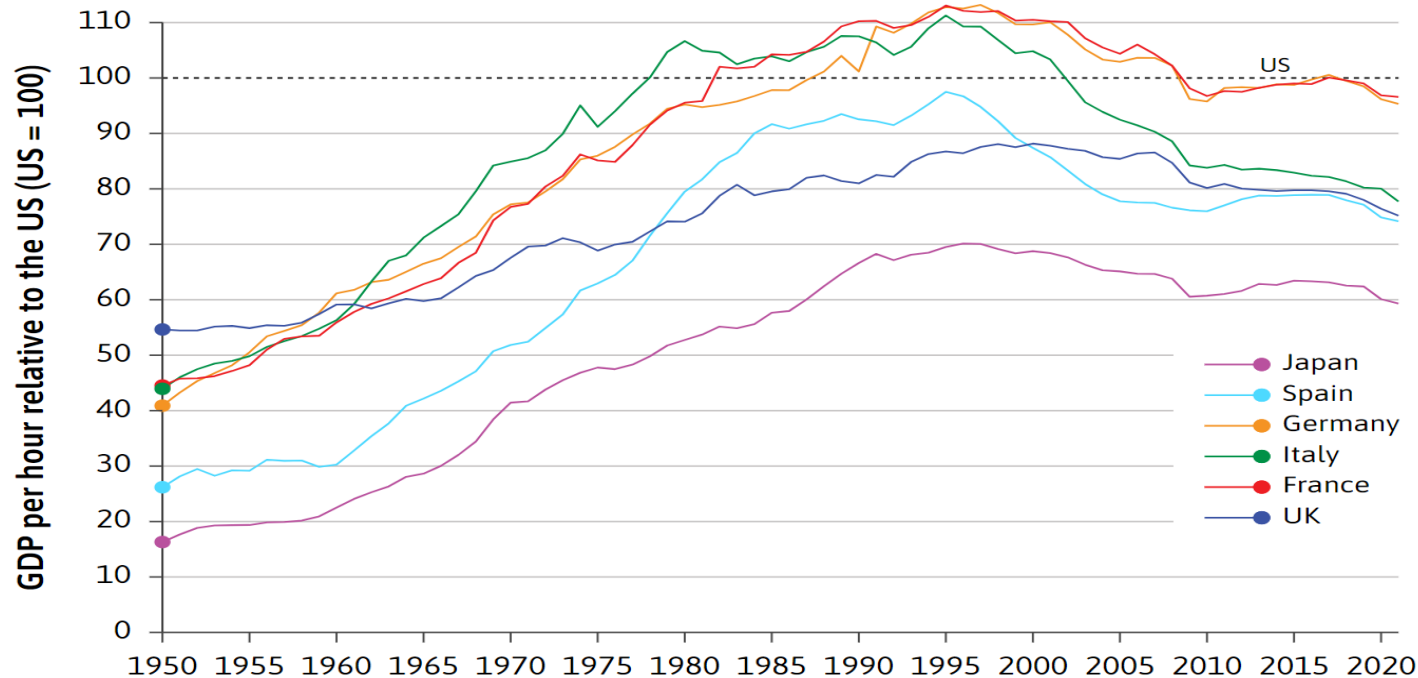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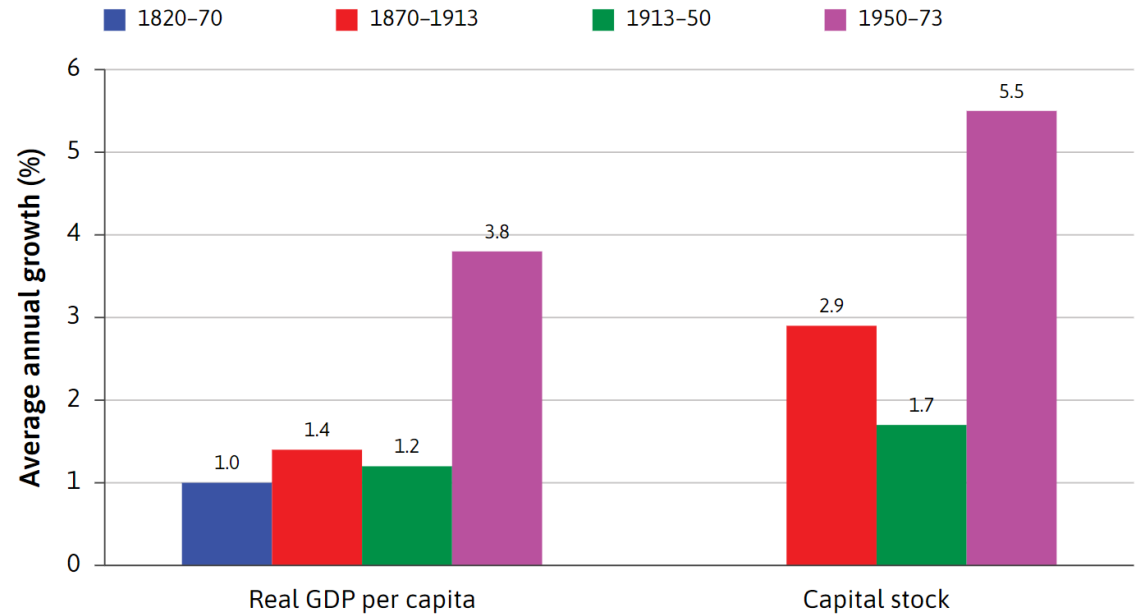
-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 지출 증대로 부족한 유효수요 ↑
- **(확장적) 통화정책** : 금리 인하로 투자와 소비 증가를 유도
- > 경기가 과열될 때는 정반대 정책.
- > 경제상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됨.
- > 정부 개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전후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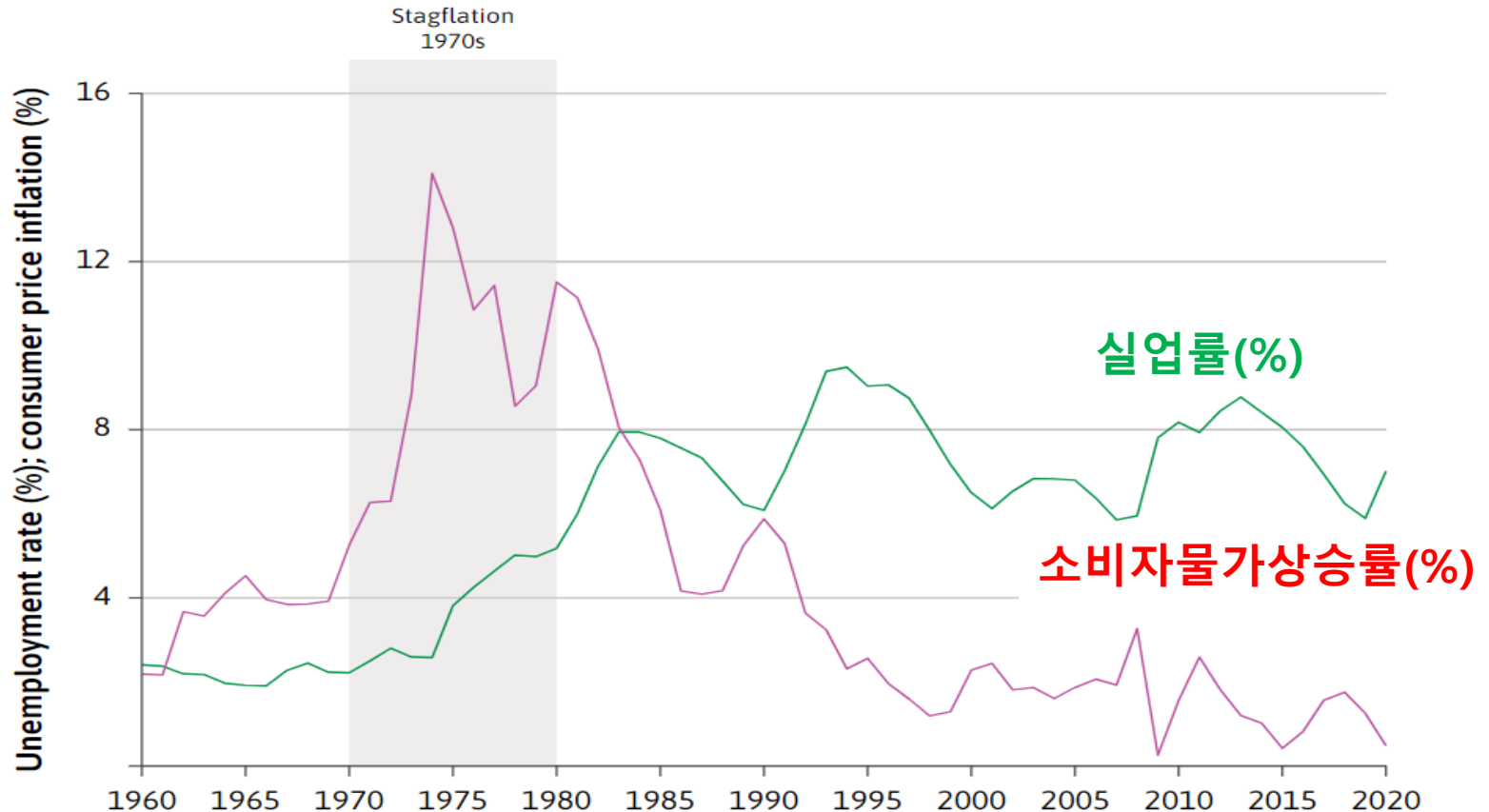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전후 자본주의



자료:
<https://www.cornell-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5.스태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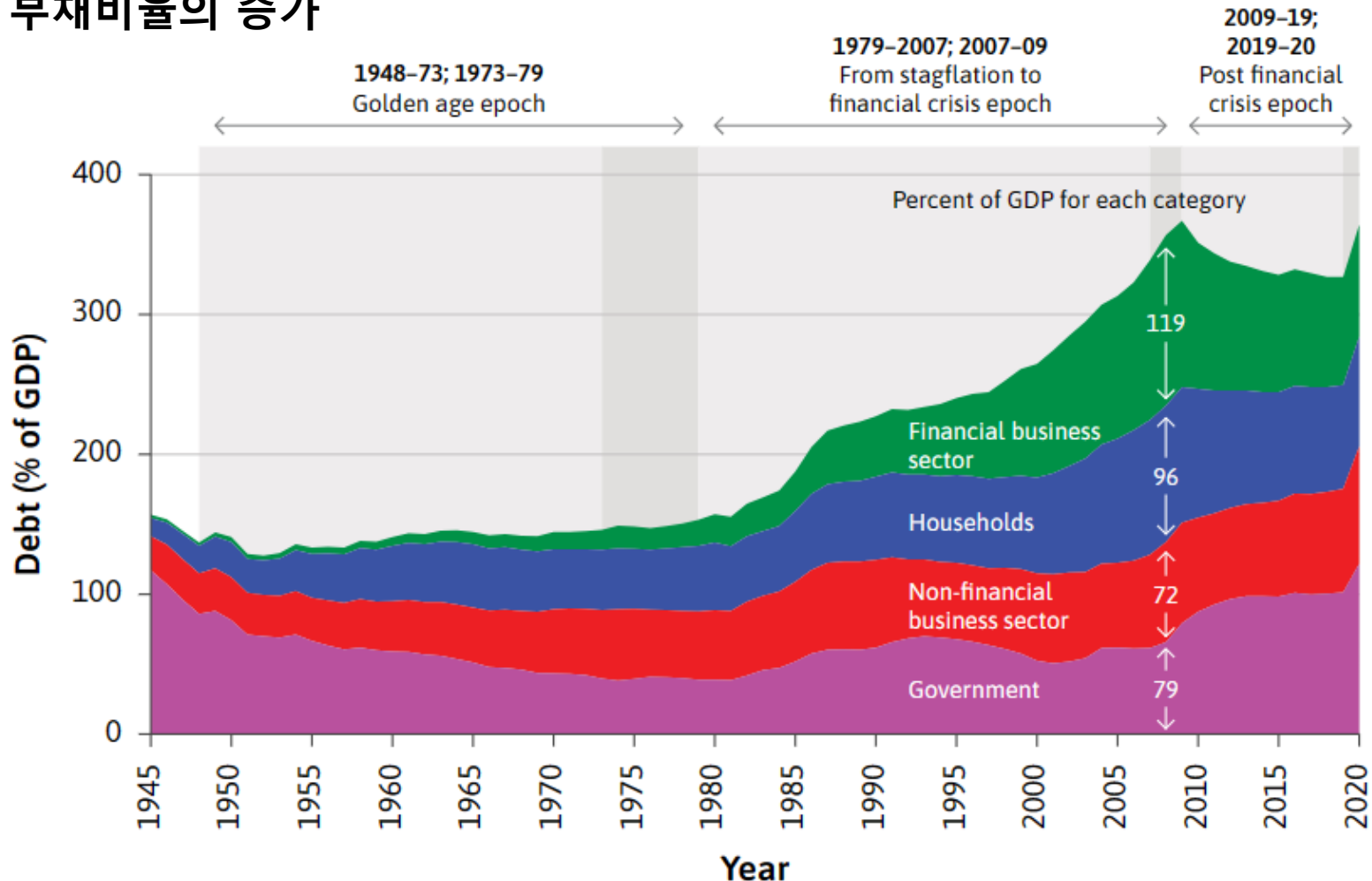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 정부 개입의 딜레마: 물가를 잡을 것인가? 경기침체를 막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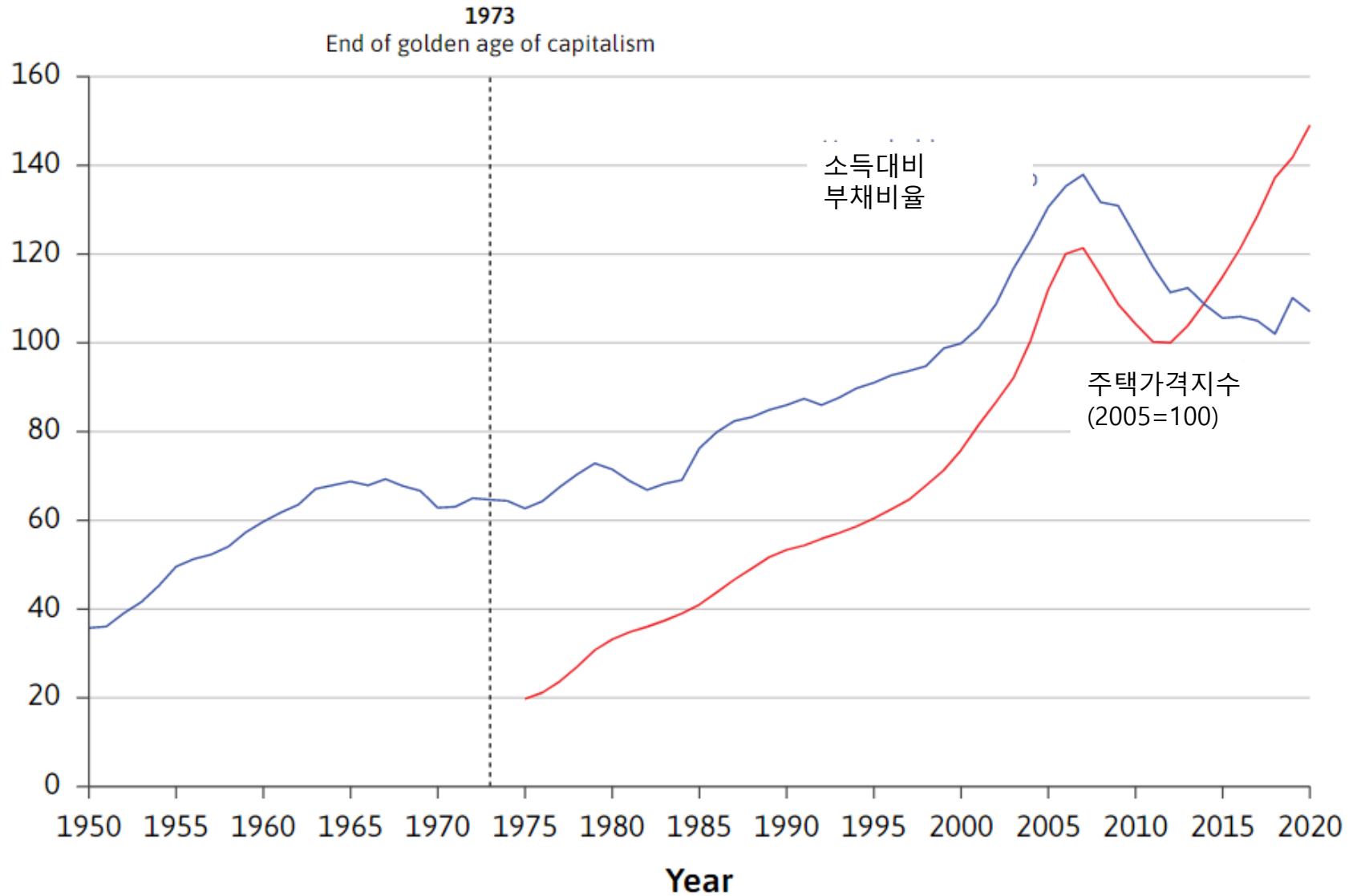
6. 부채와 경제위기

부채비율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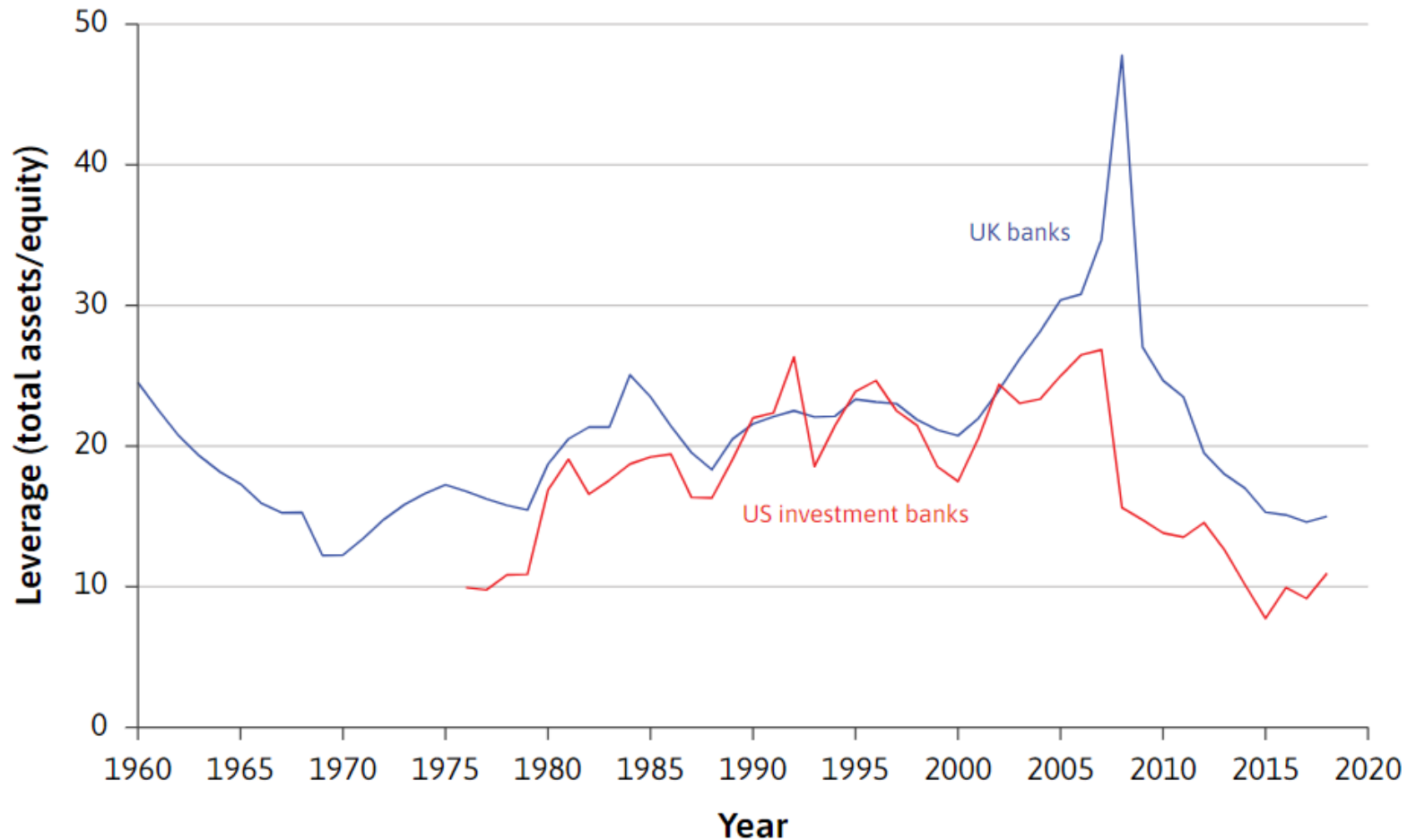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부채비율과 자산(부동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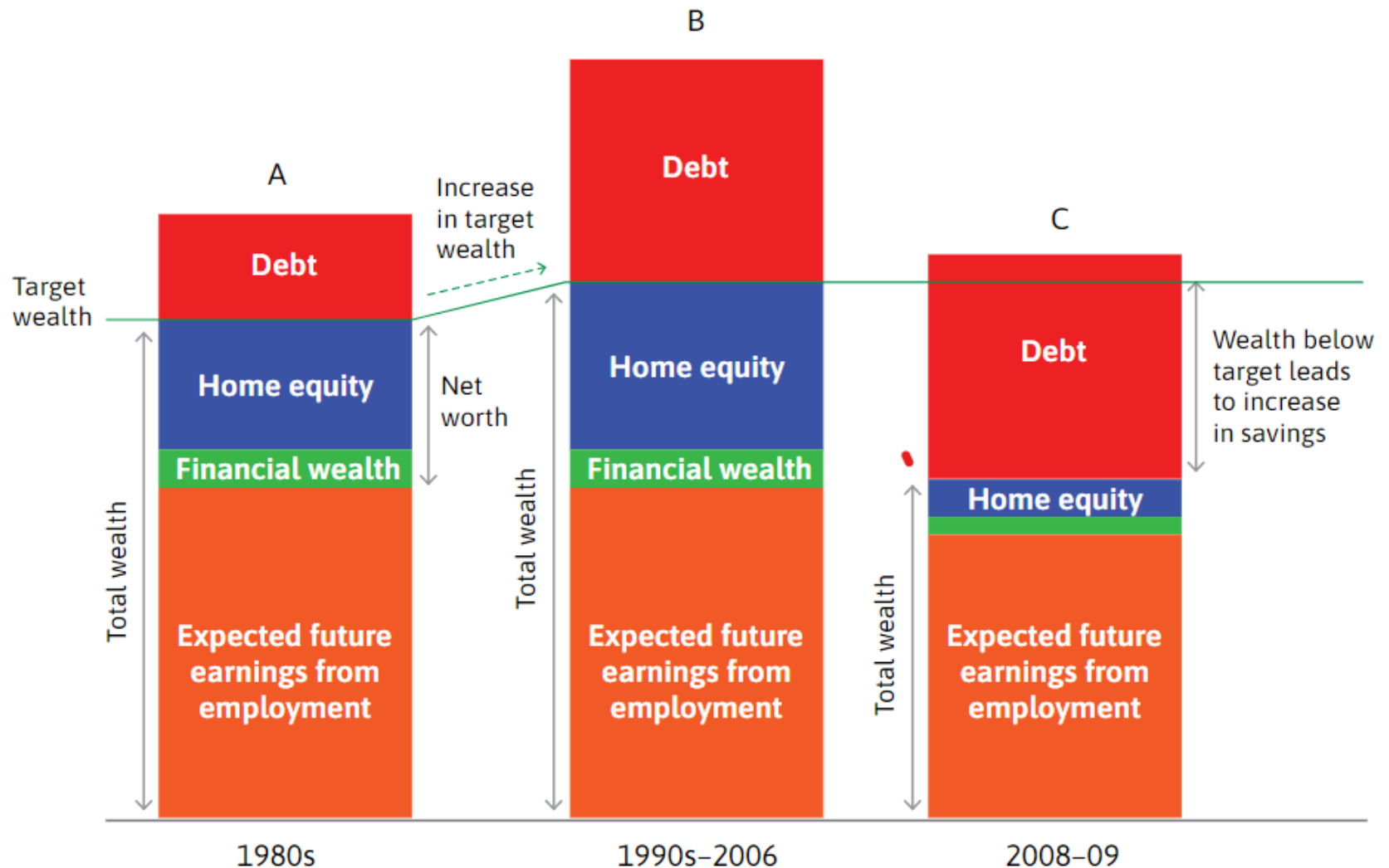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금융자유화를 배경으로 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가 증가



자료: <https://www.core-econ.org/the-economy/book/text/17.html#figure-17-27d>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 상황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

-경제주체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경제가 침체하는 현상.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가 오르면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부채 부담은 증가함. 이때 빚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치는 더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됨.

